87년 이후 광장의 젠더와 계보

—한국여성대회, 장애여성운동, 퀴어문화축제를 중심으로

허윤

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목차

1 선한 아들의 광장을 훼손하는 '공간 침입자'

2 1990년대의 광장을 재사유하기

3 한국여성대회와 여성 의제의 광장 진출

4 장애여성운동과 광장의 교차

5 퀴어문화축제와 광장의 전유

6 나가며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2A03068712)

국문초록

본고는 왜 1990년대의 성정치는 '자유'의 맥락에서만 소환되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군사정권이 끝나고 민주사회가 도래하였으며, 이념의 시대가 끝나 개인의 욕망과 자유의 시대가 되었다는 1990년대에 대한 해석은 성정치를 자유주의, 혹은 정체성 정치라는 협소한 틀에서 해석하도록 유도한다. 하지만 이는 1980년대부터 대중운동으로 성장해온 여성운동의 역량을 비가시화하는 해석 방식이다. 87년 이후 본격화된 여성운동은 성폭력, 가정폭력, 호주제 폐지 등의 구호를 광장에서 외쳤다. 1985년부터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열리는 한국여성대회, 1990년대 중반부터 그 모습을 드러낸 장애여성 운동, 2000년부터 20년째 지속되고 있는 퀴어문화축제 등 젠더 의제는 광장의 주체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니 광장의 1980년대 대 내면의 1990년대라는 해석은 광장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광장을 보지 않은 것이라 해도 무방하다.

광장의 역사와 계보에서 '차이'는 주변부적인 대상으로 치부되거나 다른 의미로 왜곡되어왔다. 비남성들이 광장의 의제를 제안했을 때, 그들의 구호는 '나중에' 다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들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국가와 공론장이 어떻게 생각했든 간에 성정치는 대중운동으로서 자신의 역량을 축적하고 있었고, 광장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다. 장애여성운동, LGBT 운동 등은 광장을 전유하고 교차성을 선취하였으며, 광장의 의제를 선도하는 역량을 키워나갔던 것이다.

국문핵심어: 3.8 한국여성대회, 퀴어문화축제, 장애여성공감, 광장, 젠더, 여성운동

1 선한 아들의 광장을 훼손하는 '공간 침입자'

한국에서 광장은 민주화를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민중의 힘으로 민주화를 이룩했으며, 시민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공간이라는 공통감각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1987년은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광장을 채우고 체제를 변혁하였던 원체험을 제공하였다. 광장은 사회적 삶과 맞닿아 있

는 공간성을 지닌 모든 곳으로, 평화적이고 대중적인 집회,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직접행동으로 등장했다.[1] 이후 2008년의 미국산 소고기 반대 시위, 2016~2017년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위한 시위 등 한국사회는 최근 10년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대규모의 시위를 연이어 경험했다. 특히 촛불광장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 사건은 '시민'의 힘으로 행정부에 압력을 주어 탄핵을 가결시켰다는 역사적 분기점을 만들었다. 2008년 이후 시민이 참여하는 대규모의 시위는 한국사회의 일상을 구성하는 요소로 자리잡았다.

1987년 이후 한국사회는 일종의 승리를 거두었다. 이는 강력한 아버지를 죽이고 그 권력을 나눠 가지는 아들들의 평등한 세계가 바야흐로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제국주의가 미국과 연합국에 의해 종결되고, 4.19 혁명의 빛나는 순간이 박정희라는 강력한 아버지로 양위되는 한국의 현대사에서, 1987년의 승리는 바야흐로 타락한 왕을 넥타이 부대로 상징되는 (남성)시민의 연대로 끌어내린 경험이었다. 린 헌트가 프랑스 혁명을 통해 지적했던 것처럼, 이 승리의 순간은 남성들 사이의 연대와 민족국가 만들기로 이어졌다.[2] 프랑스 혁명의 우애가 남성들 사이의 연대를 의미하는 것처럼, 87년 체제의 민주와 평등은 공론장을 형제들의 연대로, 형제들의 승리로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1970년대 노동운동, 민주화운동의 제일선에 있었던 여성노동자의 존재는 제대로 주목받지

1 김성일은 광장 정치의 기점을 1987년 6월 항쟁으로 잡고, 민주화 이후 2002년의 미군 장갑차 살인사건 고발 집회, 2006년의 한미 FTA 반대, 2008년의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 반대, 2016년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 등으로 광장의 계보를 설명한다. 김성일, 「광장 정치의 동학—6월 항쟁에서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까지」, 『문화과학』 제89호, 문화과학사, 2017, 150-157쪽.

2 린 헌트는 프랑스혁명의 구호인 자유, 평등, 박애가 주목하는 것은 시원적 아버지의 죽음과 형제애의 탄생이라고 지적한다. 프랑스혁명 당시 공화국의 설립 과정에서 국왕이라는 정치적 아버지는 살해되었고, 평범한 아버지들은 법률의 제약에 굴복하거나 국가의 권위에 의해 대체되었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무대 중앙에서 사라졌고, 이후 이들은 공화주의적 덕성이라는 남자들 간의 형제애에 기반하여 시민이 된다. 입법의회는 가부장의 특권을 분해하는 작업을 계속하여, 그것을 개인들 사이에 그리고 개인과 국가 사이에 계약관계를 확립시키려는 노력의 일부로 만들었다. 따라서 프랑스혁명에서 박애란 사실상 남성들 사이의 우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린 헌트, 조한욱 역, 『프랑스 혁명의 가족 로망스』, 새물결, 1999, 83-138쪽.

못했다.

너멀 퓨워는 여성이나 소수자들이 제도에 진입할 때, 그들은 일종의 '공간 침입자'가 된다고 설명한다. 침입자가 제도에 진입하면서 어떤 특정한 신체 유형이 암묵적으로 특정 지위의 '자연스러운' 점유자로 지정되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다. 어떤 사람들은 그 공간에 속할 권리를 가졌다고 여겨지는 반면, 어떤 이들은 무단 침입자로 표시된다.[3] 대학생과 넥타이 부대의 것으로 여겨졌던 광장에서 여성들이 성폭력, 가정폭력, 호주제 폐지 등 자신의 의제를 제안했을 때, 그들은 가시화되었고, 침입자로 여겨졌으며, 여성들의 구호는 '나중에' 다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들로 분류되었다.[4]

그러나 이 광장은 언제나 드러나지 않는 자들을 남긴다. 2019년 10월 초 경향신문은 '광화문과 서초동 사이'라는 연재 기사를 통해 대규모 가두집회가 이어졌던 두 진영이 보지 않는/비가시화하는 문제들을 이야기했다. 탈시설과 장애인 학습관, 페미니즘, 기후위기, 난민, 밀양, 성소수자, 존엄한 노동자 등을 의제로 내세운 청년 10명의 릴레이가 이어졌고, 이는 '#나는나의깃발을들겠습니다'로 나타났다.[5] 촛불집회의 감격과 민주시민에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 왜 어떤 의제는 광장의 중앙에 놓이지 못하고 '사이'에 있어야만 하는가. 이는 한국의 광장이 평등하고 민주적이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본고는 이 '사이'의 계보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사회에서 광장의 젠더를 심문하고자 한다.

---

3 너멀 퓨워, 김미덕 역,『공간 침입자』, 현실문화, 2017, 9-30쪽.

4 2017년 2월 16일 당시 대통령 후보이던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개최한 '정책공간 국민성장' 포럼에서, 한 성소수자가 "저는 여성이고 동성애자인데 제 인권을 반으로 자를 수 있습니까"라며 동성애자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요구했다. 이에 문재인 후보는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를 드릴게요"라고 대답하였으며, 지지자들 역시 "나중에"를 외쳐 발언을 이어나가지 못하도록 했다. 이후 '나중에'는 여성, 성소수자 등 공론장에서 비가시화되는 이슈를 지칭할 때 등장하는 관용어가 되었다.

5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거취를 둘러싸고 벌어진 두 집단의 대립은 서초동에서는 검찰개혁을, 광화문에서는 문재인 정권 퇴진을 외치는 광장의 싸움으로 표상되었다. 이에 젊은 진보 정치인 고은영과 신지예의 제안으로 경향신문에 연재된 이 글은 양당이 대표재현하지 못하는 한국의 시민에 주목하였다.「광화문과 서초동 사이…"나의 깃발을 들겠다"」,『경향신문』, 2019.10.6.~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061720001

2015년 ‘페미니즘 리부트’가 강력하게 자신의 존재를 공론장에 드러낸 이래, 광장에 선 여성을 보지 않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2016년 5월 17일 “여자들이 나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20살의 젊은 여성을 살해한 강남역 10번 출구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포스트잇을 붙이며 애도를 전했다. 여성들은 이 사건이 명백한 여성혐오 살인이라고 외치며 시위를 조직했다.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는 이후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인 ‘불편한 용기’로 이어졌다. 불편한 용기는 6차례에 걸쳐 30만 명 정도를 동원하였으며, 여성 대중만으로 이루어진 최대 규모의 집회로 기록되었다. 2016년 7월 18일 성우 김자연 씨는 ‘왕자는 필요없다(Girls do not need a prince)’는 티셔츠를 입고 SNS에 사진을 올렸다. 다음날 넥슨은 이미 녹음된 게임에서 그녀의 목소리를 지웠다. 넥슨 본사 앞에서 시작된 시위에서 여성들은 SNS를 통해 모여서 자발적으로 시위를 진행하고 해산하였다. 2018년에는 공연계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위드유(With You) 시위가 진행되었다. 공연 관람객인 여성들이 성폭력 문제를 일으킨 배우, 연출을 무대에서 퇴출시킬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와 같은 여성 중심 시위는 의제에 따라 SNS를 통해 연결되는 불특정 다수의 광장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의제를 확산하고, 시위를 진행하였다.

1987년 이후 2016~2017년의 촛불시위로 이어지는 광장의 역사화에서 젠더는 늘 잠깐씩 나타났다 사라지는, 잘 보이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최근 광장을 대표하는 것은 다수의 여성-시민의 형상이다. 이러한 여성-시민의 출현은 광장 정치의 역사에서 새로운 현상인 것만은 아니다. 여성을 광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의제로 내세운 것은 지난 20년간 광장에서 지속해온 작업이기도 했다.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여성안전 이슈, 호주제와 민법 개정을 통한 권리 확보, 낙태죄 폐지를 위한 싸움에 이르기까지 젠더를 기반으로 한 운동은 다양한 각도에서 펼쳐졌다. 본고는 이러한 측면에서 1987년 이후 1990~2000년대를 가로지르며 광장의 계보를 탐색한다. 개인과 내면의 1990년대라는 해석이 비가시화하는 광장의 면모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페미니즘 리부트’의 전사(前事)인 여성 대중 운동의 계보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개인과 사회, 정치적인 것과 비정치적인 것으로 나뉘어져 있는 광장의 문법을 탈구하고, 광장의 변화를 가시화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를 위해 여성단체연합이 매년 개최하는

한국여성대회와 1990년대 여성운동의 단면을 살펴볼 수 있게 해주는 장애여성운동, 광장을 축제로 전유한 성소수자 가시화를 목표로 한 퀴어문화축제 등 세 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고, 1987년 이후 물리적, 정치적 공간으로서 광장의 역사성을 젠더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광장의 의미를 새롭게 재구성할 것이다.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매년 개최되고 있는 한국여성대회와 1990년대 등장한 장애여성공감, 2000년에 출발한 퀴어문화축제 등을 중심으로 페미니즘의 문제의식이 광장에서 의제를 확장해갔던 역사에 대해 살피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비가시화되었던 광장의 젠더를 역사화하고, 그 계보를 통해 새로운 광장을 상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2 1990년대의 광장을 재사유하기

한국사회에서 광장의 역사는 흔히 87년 이후 광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질문과 연결된다. '운동'은 종결되었고 개인주의의 1990년대가 도래하였다는 진단은 얼마나 유효한가, 1987년에서 촛불광장으로 연결되는 광장의 계보에서 누락시킨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다. 이러한 역사화에서 1990년대는 민주화 이후 상업주의와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이념의 진공 상태로 인한 지식사회의 붕괴가 일어나고 상대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이 득세한 시대로 상징된다. 청년세대는 국가와 민족의 미래보다 사랑놀음에 빠져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이를 혁명 뒤의 우울함과 상실이라는 감각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정종현은 1990년대 독서문화사를 정리하면서 1990년대는 잃어버린 자아 찾기를 주제로 한 문학작품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지적한다. 1980년대를 살아낸 청춘들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그려 낸 작품들이 등장했고,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의『상실의 시대(ノルウェイの森)』가 한국 사회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린 것은 그런 정서의 반영이었다는 것이다. 상실과 허무, 절망의 세트가 갖춰진 1990년대의 독서 문화는 1990년대에는 청년이나 운동, 광장이 끝났다는 해석과도 상통한다.[6]

1994년 창간한 계간지『문학동네』는 1990년대 초반 한국 사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동구와 소련에서의 현실사회주의 정권의 몰락이 초래한 이념적 진공 상태는 천민자본주의가 발호할 수 있는 절호의 토양이 되어 주고 있으며, 무분별한 상업주의의 유혹은 우리의 인내력을 시험하는 단계를 넘어 거의 고문하는 경지에 이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명기해 두기로 하자. 아울러 탈산업사회의 전도사들인 각종 영상 매체와 컴퓨터 등이 문학으로 대표되는 문자문화의 영역을 무서운 속도로 잠식해 들어옴에 따라 여러 심각한 부작용을 표출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여두기로 하자.[7]

이데올로기의 붕괴와 천민자본주의의 발호를 우려하는 진지한 목소리는 문학이 처한 곤경을 노출한다. 영상 매체와 컴퓨터 등 흥미를 자극하는 말초적인 것들이 독서 대중을 타락시킬 것이라는 두려움이다. 여기서 문학의 자리를 이데올로기나 광장으로 바꾸어 읽어도 의미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1980년대 대학생들이 민주화나 통일 등을 고민하며 국가와 민족을 위한 투사로 자신을 정체화했던 것과 달리, 1990년대의 대학생들은 사회 변화의 주체가 아니라 자본주의와 상업주의의 포로가 될 '개인'으로 호명된다.

자유와 소비, 냉소주의가 1990년대 일상생활을 직조하였다고 보는 주은우는 1990년대의 특징으로 성정치의 강화를 꼽는다. "여성들의 힘이 가시화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여성정책을 입안하고 여성운동의 요구를 체제 내로 수렴한 시기"이며, 커밍아웃, 성교육 등을 비롯한 섹슈얼리티 담론 역시 공론장에 쏟아졌다는 것이다.[8] 그런데 이는 모두 '자유'의 범위 안에서 '신세대'의 특징으로 설명된다. 이들은 '이념의 시대'를 대체한 '소비의 시대'에 가장 적절한 주체들이며, 냉소와 향유의 시대라는 1990년대에 대한 진단은 그대로 이어진다. 물론 1990년대는 '하나가 아니'며 여러 주체들이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았던 복수적 시

6 천정환·정종현, 『대한민국 독서사』, 서해문집, 2018, 261-262쪽; 김영찬, 「무라카미 하루키, 사라지는 매개자와 1990년대 한국문학」, 『한국학논집』 제72호,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8, 7-30쪽.

7 「문학동네 창간사」, 『문학동네』 제1호, 문학동네, 1994, 15쪽.

8 주은우, 「자유와 소비의 시대, 그리고 냉소주의의 시작: 대한민국, 1990년대 일상생활의 조건」, 『사회와 역사』 제88호, 한국사회사학회, 2010, 307-344쪽.

기이기도 하다.[9]

김원은 1980년대와 1990년대의 특징을 나누면서 '개인'의 대두를 꼽았다. 1980년대의 '집단적 체험'을 개인화하면서 등장한 세대에게 있어 1980년대는 아직 끝나지 않은 '장기 80년대'라는 것이다.[10] 개인화된 집단적 체험은 신경숙과 같은 작가에서도 나타난다. 미학적 노동소설의 등장을 상찬했던 문단의 목소리에는 이 1980년대와 1990년대 사이의 연속과 분절이 놓여 있다. 이러한 복수적 해석은 광장의 주체로 호명되었던 대학생이나 지식인들이 '내면적 주체'로 거듭났다는 판단으로 종합된다.[11] 1990년대를 '진정성의 레짐'으로 정의한 김홍중은 생존이 부끄러움이 되는 '마음'을 1990년대의 특징으로 지적한다. '개인'과 '내면'의 가치를 옹호했던 1990년대의 진정성이라는 키워드는 지금까지 1990년대를 설명하는 설득력 있는 진술로 남아 있다.[12] 그러나 1990년대를 개인과 내면의 시대로 정의한다면, 1990년대 광장의 성 정치는 무엇으로 설명해야 하는가.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로 대표되는 1990년대의 성정치는 주은우가 '자유'로 설명했던 것처럼, 자유주의적이고, 포스트모던하고 개인적인 것이었을까?

민족민주운동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지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 미뤄두었던 여성문제들은 스스로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운동을 만들어나갔다. 1980년대부터 민족민주운동에서 분리된 여성만의 독자운동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여러 곳에서 터져나왔다. 이는 여성 억압의 근본 원인 혹은 우선 과제를 두고 민족민주운동 진영과 여성들이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계급 중심의 민족민주운동 진영과 젠더를 근본 모순으로 삼는 진영 사이의 갈등이 가시화된 것이다.

---

9 김영찬, 「'90년대'는 없다: 하나의 시론, '1990년대'를 읽는 코드」, 『한국학논집』 제59호,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5, 7-27쪽.

10 김원, 「80년대에 대한 '기억'과 '장기 80년대'」, 『한국학연구』 제36호,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5, 9-49쪽.

11 조연정, 「문학동네의 90년대와 386세대의 한국 문학」, 『한국문화』 제81호,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8, 221-246쪽.

12 김홍중, 「진정성의 기원과 구조」,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2009, 17-50쪽.

1호 좌담을 보면, 또문이 무엇을 지향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권위주의, 획일성에 대한 반대로 우리가 또문 운동을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지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모든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는 구조, 특히 여성들을 옭아매고 있는 어떤 틀을 깨고자 한 것입니다. 운동 방식에 대한 논의가 나온 것은 제도 정치권은 물론이고 사회운동권조차 흑백 논리, 획일화, 권위주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였습니다. (…) 구태여 대비를 해본다면 기존의 운동이 계급 일변도로 나갔다고 한다면 또문은 여성 문제를 들고 나왔고,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요소를 벗어버리지 못한 기성 운동권에 대해 쭉 거리를 두어 왔습니다. 여성운동의 독자성을 강조했다고 할 수 있겠죠. 사실상 지식인 중심, 지도자 중심의 운동을 하면서 기층을 운동의 주체로 내세우는 기존 운동의 모순적 현상을 보면서, 문제의식을 스스로 느끼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자기를 변화시키는 운동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지요.[13]

조형은 '또 하나의 문화'(이하 '또문')를 시작하던 1980년대 중반 '기존의 운동'을 계급 일변도로 지칭하면서 "자기를 변화시키는 운동"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는 운동권 내 가부장적 문화를 지적한 것으로 "여성운동의 독자성"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또문'이 선택한 방식은 대안적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었다. '또문'은 실제로 동인들을 중심으로 어린이 캠프, 예비 대학생 캠프 등을 진행하였고 다양한 소모임을 통해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시화전을 개최하거나 주부 공부방 같은 형식의 아카데미, 글쓰기 모임이나 편집 모임도 운영하였다. 이러한 대안 공동체는 '광장은 필요 없다'는 선언으로 읽을 수도 있다.

(『또문』에 대한) 이런 질문과 빈정거림을 우리는 개의치 않았다. 우리는 더 이상 '중심'에 있는 지배 문화를 흉내내거나 '지배 집단'에 끼고 싶어

13 조형, 「또 하나의 문화 10주년 기념 좌담 '따로 또 같이 하는 사회운동'」, 『또하나의문화—내가 살고 싶은 세상』 제10호, 또하나의문화, 1994, 447-448쪽.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자주적인 우리는 모여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실현해 가고자 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했다. 꼭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닐지 모르지 않니? 당신을 위해,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생각해봐. 작은 '폭군들'을 섬기는 생활, 숨죽임의 생활을 어쩌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지 몰라. 우리가 원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야.[14]

'또문'은 광장의 정치 대신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운동을 주창하면서, 삶을 변화시키려 시도한다. 이러한 또문의 정신은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여성운동에서 중요한 한 획을 긋기도 했다. 그러나 또문이 강력하게 비판한 것처럼 기존의 운동권이 자기를 변화시키지 못한 것은 아니다. 2018~2019년 장애여성공감 20주년, 한국여성단체연합 30주년 등 많은 여성단체의 기념식이 있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에 걸쳐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등 여러 곳에서 페미니즘을 의제로 삼은 공동체가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민중'이 떠난 광장에서 여성들은 도리어 긴 싸움을 예비했다. "여성운동은 그 자체로는 가치 있는 정당한 운동이 아니었고, 가외의 노동으로서 (남성을 중심으로 구성된) '민중적 이슈'에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느냐에 따라 평가받았다."[15]는 문제의식은 여러 조직으로 퍼져나갔고, 자연스레 여성운동 진영은 젠더 의제 중심으로 독자 운동을 전개해나갔다.

1983년 '여성의전화'를 시작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을 문제시하고 여성운동을 의제로 다루는 단체들이 생겨났다. 1987년 한국여성단체연합, 1991년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1987년을 전후로 한국사회에는 젠더 의제를 중심으로 한 여성단체들이 장애여성, 여성동성애자, 일본군 '위안부' 운동 등 다양한 여성의 삶을 중심으로 한 운동을 펼쳤다. 이는 "기존의 남성중심적인 사회운동론을 이들 여성운동의 경험으로부터 다시 배워서 재규정, 재개념화"하는 것이었으며, "우리 사회구조의 근본원리에 도전, 저항하는 것으로서 여성주의뿐만 아니라 학문 영역

14 조혜정·김은실, 「또 하나의 문화, 앞으로 10년」, 『또하나의문화—내가 살고 싶은 세상』 제10호, 또하나의문화, 1994, 479쪽.

15 전희경, 『오빠는 필요없다』, 이매진, 2008, 199쪽.

전반에 걸쳐 많은 이론적 이슈를 제공하는 소중한 성과"였다.[16] 광장이 끝난 후 도래한 것은 성정치의 시대인 것이다.

> 여성이 겪고 있는 고통의 뿌리는 이 사회의 반민주적, 반민중적 구조에 있으며 그 위에서 경쟁위주, 물질위주의 비인간적 사회가 독버섯처럼 번창하고 있다. 여성이 해방되기 위해서는 가정을 포함한 이 사회가 인간의 존엄을 구현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로 바뀌어야만 한다. 오늘 우리 여성들은 분단된 조국의 통일과 민주사회를 향한 기로에 서 있다. 한편으로는 자주적 민주사회를 목마르게 갈구하는 국민들의 힘이 분출된 결과 '민주주의의 실현'이 당위적 과제로 설정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반민주적 구조를 자기 기반으로 하는 억압세력이 여전히 자신의 온존을 꾀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현실은 여성들에게 역사 앞으로 한 발 다가설 것을 시급히 요청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여성들이 이제껏 억눌려온 자신의 권익을 되찾고 거대한 정치세력으로 부상, 다가올 미래를 책임져야 할 시점이기 때문이다.[17]

1987년 출범한 한국여성민우회(이하 민우회)의 창립선언문은 198,90년대 많은 수의 여성단체가 등장한 이유를 잘 보여준다.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가정을 포함한 사회 전 영역이 민주화되어야 하고, 여성해방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이다. 반민주적 한국사회에 대한 비판으로 삶을 개혁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또문과도 유사하다. 하지만 민우회는 "여성대중의 광범위한 참여"를 통한 광장의 정치로 실천하려고 했다. 각 분야를 전문적으로 대표하는 운동단체들이 설립된 것에 뒤이어,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결성이 이어졌다.

---

16 한국여성의전화 편, 『한국여성인권운동사』, 한울, 2015, 8쪽. 이 책에서는 198~90년대에 걸쳐서 "성폭력추방운동, 아내구타추방운동, 정신대운동, 기지촌여성운동, 성매매추방운동, 장애여성운동, 여성동성애자운동" 등을 기록한다.

17 「한국여성민우회 창립선언문」, http://www.womenlink.or.kr/introductions/about_womenlink

하루 1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과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기아 임금으로 여성들은 노동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농촌에서는 무분별한 외국 농·축산물 수입과 저농산물 가격으로 농가 경제는 파탄에 이르고 농촌 여성은 힘겨운 농사와 가사에 허리 펼 날이 없다.

민족의 대제전으로 선전되는 88올림픽 개최의 이면에는 생계 대책과 잠 잘 자리조차 빼앗긴 영세 행상인, 노점상, 도시 빈민여성의 아픔이 있다. 또한 외화 획득이라는 미명 하에 정책 산업화된 기생관광은 가난한 우리의 딸들을 국제적인 매춘부로 만들고 있다.[18]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은 여성노동자, 여성농민, 도시빈민여성에서부터 기생관광,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의 근본 모순을 젠더로 인식하고, 젠더의 관점에서 한국사회를 변혁하고자 하였다. 특히 여연 창립에 함께 한 주체로 1970년대의 여성노동자, 지식인여성, 진보적 기독교운동에 참여한 교회여성들을 거론함으로써, 우파 여성운동과 스스로를 변별하며 대중운동이자 사회변혁운동으로서 여성운동의 기치를 표방하였다. 성별과 계급, 사회 구조가 중층적으로 작용한다는 여연의 문제의식은 개인과 내면의 1990년대로는 설명되지 않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19] 즉 1987년 이후, 여성운동은 오히려 더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3 한국여성대회와 여성 의제의 광장 진출

여연을 중심으로 각종 여성단체들이 연대하여 거행하는 한국여성대회는 젠더 이해를 들고 광장에 진출하여 벌이는 축제이자 운동이다. 1985년 3월 8일 서울 YWCA에서 제1회 한국여성대회(3.8 여성대회)가 열렸다. '세계 여성의 날'을 기

18 「87 여성운동 선언문」, 한국여성단체연합 홈페이지. http://women21.or.kr/vision

19 초창기 한국여성단체연합에는 여신학자협의회, 여성평우회, 여성의전화, 또 하나의 문화, 기독여민회 등 지식인 중심의 여성단체들뿐 아니라 여성노동, 성폭력, 반독재 민주화 운동과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다. 특히 성고문대책위원회, 생존권대책위원회, 여성노동자생존권대책위원회 등을 공동으로 전개해나갔다.

념한 1회 대회의 주제 강연은 이효재의 「민족민주운동과 함께 하는 여성운동」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강서구 목동에 사는 여성들이 신시가지 건설로 인한 이주 문제를 고발하거나 노동자 여성들이 임금 문제를 고발하는 등 한국여성들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방향을 모색해나가는 자리로 삼았다. 초기에는 YWCA나 여성단체 회관, 대학 강당 등을 빌려서 실내 행사로 진행하던 것이 2002년부터 장소가 대학로, 여의도광장, 청계광장 등 열린 공간으로 변경되었고, 2010년대에 와서는 서울광장, 광화문광장으로 나아갔다. 실내에서 기념식을 거행하고, 거리에서 행진을 진행하던 것에서 광장 자체로 공간이 변화한 것이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광화문광장, 서울광장을 정치의 공간으로 본격적으로 사유하기 시작한 시점과 맞물린다. 즉 1987년에서 2002년, 2008년으로 단절과 지속을 이어가던 광장 정치의 계보는 대중화된 여성운동이라는 한 축을 배제할 때만 가능한 방식인 것을 보여주는 셈이다. 1986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된 한국여성대회는 그 단절과 분절 사이에서 지속되고 있는 광장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1985	민족민주민중운동과 함께 하는 여성운동	서울 YWCA
1986	민족, 민주 민중과 함께 하는 여성운동, 생존권 쟁취하여 여성해방 이룩하자	구세군 서대문 본당
1987	민족현실과 여성운동	여의도 여성백인회관
1988	여성이여 민족자주화의 대열로	63빌딩 컨벤션센터
1989	평등한 삶의 새날을 향하여 여성주간 설정, 올해의 인물: 강정순 (경찰 성폭력 사건)	9월 22~30일 전국 각지
1990	평등한 노동, 건강한 모성 여성해방은 모성보호로부터	영등포 성문밖교회
1991	평화 군축 통일을 여성의 힘으로 지방자치제를 맞는 여성들의 각오	여의도 여성백인회관
1992	여성들의 한 표로 세상을 바꾸자 올해의 여성상: 김학순	여의도 여성백인회관
1993	전진하는 여성, 열리는 사회 문민정부 출범과 여성정책	서울 YWCA 강당
1994	지역살림의 참일꾼 여성대표를 지방의회로 여성의석 20% 확보	동국대 중강당

1995	열린 정치 생활정치, 여성대표를 지방의회로 남녀유권자 한마당, 지방의회 예비여성후보	이화여대 대강당
1996	여성이 열어갈 21세기 복지 인권의 시대로	한국여성개발원
1997	가자 21세기 여성의 시대로	연세대 백주년 기념관
1998	가자 여성이여 고용안정 인권이 보장되는 평등의 시대로 올해의 여성운동상: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변호인단 박원순 이종걸 최은순	연세대 백주년 기념관
1999	평등 평화 이루는 새로운 천년으로 여성 지도력으로 21세기 인간중심 사회 열자	여의도 KBS홀
2000	새로운 천년 빈곤과 폭력 없는 세상을 위하여	여의도 KBS홀
2001	차별 편견 깨뜨리고 남녀평등 공동참여 사회로 나아가자 올해의 여성운동상: 윤정옥	정동 이벤트홀
2002	성매매 방지법 제정 호주제 폐지 보육의 공공성 확보	대학로
2003	성매매 방지법 제정하라 여성의 힘으로 반전 평화를 양성평등 예산 확대	대학로
2004	남녀가 함께 행복한 상생의 공동체로	여의도광장
2005	행복한 나눔 평등한 가족 힘내라 여성 호주제 폐지축하	이화여대 대강당
2006	양극화 넘어 더불어 함께 여성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차별철폐 한부모지원제도 확대	이화여대 대강당
2007	양극화 넘어 대안사회로 빈곤의 여성화 해소 평등평화 문화 확산 풀뿌리 지역 공동체 확대 올해의 여성운동상: KTX 지부	홍익대 체육관
2008	여성 새로운 공동체 세상을 열자	이화여고 유관순기념관
2009	여성이 만들어요 빈곤과 폭력 없는 행복한 세상	청계광장
2010	여성의 참여로 희망을 현실로 —성평등한 공동체 여성의 한 표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빈곤 폭력 없는 안전한 세상	이화여대 대강당
2011	그녀에게 빵과 장미를	프레스센터

2012	2012 약속해 —성평등 사회를 약속해 —평화로운 세상을 약속해 —99%의 행복을 약속해	서울광장
2013	2013 여성, 빈곤과 폭력 없는 세상으로 —빈곤 없는 세상! 폭력 없는 세상! 소외와 차별 없는 세상!	서울시청 다목적홀
2014	점프, 뛰어올라 희망을 찾자!	청계광장
2015	성평등은 모두를 위한 진보다	광화문 광장
2016	희망을 연결하라—모이자! 행동하자! 바꾸자! 성평등 특별상 KTX 승무지부	서울시청 다목적홀
2017	성평등이 민주주의 완성이다	서울시청 다목적홀
2018	내 삶을 바꾸는 성평등 민주주의 미투 행진	광화문 광장
2019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미투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	광화문 광장
2020	페미니스트 정치, 바로 지금! 올해의 여성운동상: 66년만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낸 모든 여성들	코로나 19로 인해 광장 행사 취소

표 1. 한국여성대회 1985~2020

한국여성대회의 구호를 보면 1987년부터 현재까지 여성 의제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초창기 운동의 구호는 '민족민중운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2회 대회에서는 "지금까지의 여성운동은 농촌여성 근로여성빈민 여성들의 생존권 확보 운동과 연계를 갖지 못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며 이전 세대의 여성운동과의 차별화를 명시한다. 이는 그동안의 여성운동이 국가의 여성 정책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데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20] 3회에서 주제강연을 맡은 서광선은 "분단으로 인한 반공이데올로기는 폐쇄성을 정당화시켜왔다. 개방사회는 폐쇄사

20 허윤, 「1970년대 여성교양의 발현과 전화(轉化): 『女聲』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제44호,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3, 47-89쪽.

회로부터의 해방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여성운동이 민족민중 통일운동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1980년대의 분위기는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조금씩 변화를 보인다. 민족민중 운동, 통일 등의 구호 대신 대의 정치를 통한 여성 의제의 정책화를 표어로 삼는 것이다.

1990년대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여성대회의 표어는 여성참정권과 여성정치, 여성정책 등 '여성의 시대'를 예비하려는 목소리가 등장했다. 민중과 통일의 구호 대신, 생활정치와 복지의 문제가 전면에 대두된 것이다. 이는 김대중, 이희호와 같이 여성인권운동에 우호적인 인사들이 행정부의 대표가 되었다는 점과도 연결된다. 실제로 1997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총재였던 김대중 대통령이 한국여성대회에 참석하였고, 1998년에는 당시 영부인이었던 이희호 여사가 참석하였다. 이는 여성운동이 국가의 지원과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위기를 형성하였다. 1992년부터는 성매매방지법 제정, 호주제 폐지, 여성일자리 확대 등의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되며, 이 의제들은 성매매특별법, 민법 개정 등의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남녀가 함께' '행복한' 등의 구호가 반복되면서 가족 속의 여성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두었다. 1993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서울대 신교수의 조교 성희롱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공론화되고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진보 운동권 사회에 대한 전면적 비판과 자기반성 등이 1990년대 내내 이루어졌으며 이는 2000년의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의 고발 등으로 이어졌다. '개인'과 '자유'의 주체로 호명된 대학생들은 고려대생들의 이화여대 집단난동사건(1996) 등을 거치면서 대학 내 반성폭력운동이 성장했고, 1997년에는 18개 대학 여성운동 단위들로 구성된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가 반성폭력 학칙제정 운동에 힘을 모았다.[21] 성폭력은 여성의제가 대중화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2020년 현재 역시 한국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 문제는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추동하는 힘이다.

21 김보명, 「1990년대 대학 반성폭력 운동의 여성주의 정치학」, 『페미니즘 연구』 제8권 1호, 한국여성연구소, 2008, 181-217쪽.

2000년대 중반 이후로 강조된 것은 여성노동 정책과 관련된 이슈였다. 2001년 여성부가 신설되면서, 여성운동이 제도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시민사회에 번졌다. 하지만 IMF 이후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여성의 비정규직화가 심화되고, 여성의 빈곤화가 여성운동의 의제를 대표하게 되었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구호로 포함시키거나 KTX 승무원 지부에게 올해의 여성운동상(2007)을 수여하는 등 빈곤의 여성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정규직 전환을 약속받았던 KTX 승무원 지부의 오랜 싸움은 2000년대 한국 여성운동을 대표하게 되었다.

이처럼 한국여성대회는 각 시기에 따라 한국 여성사회에 필요한 운동에 목소리를 내왔다. 여성안전, 노동, 정치 등 젠더 이해를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자신의 장을 확장해온 것이다. 기독교여성단체, 여성민우회, 여성노동자회 등 각 영역의 여성단체들이 힘을 모아 준비하는 한국여성대회는 여성들이 다양한 운동 의제에 '따로 또 같이'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3 장애여성운동과 광장의 교차

1990년대~2000년대 여성운동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은 포스트 페미니즘의 정체성 정치가 적대와 계급이 탈각된 형태라는 점이었다. 낸시 프레이저는 민영화와 탈규제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는 공공지원과 사회적 시민권 대신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였고, 이후 신자유주의의 부상에 따라 페미니즘이 인정 투쟁의 단계로 넘어갔다고 지적한다. 성별 사이의 차이, 여성들 사이의 차이 등 차이에 대한 인정을 중심으로 하는 정체성의 정치는 문화정치의 영역을 개척하였다는 것이다. 프레이저는 이 과정에서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차원이 서로 분리되었다고 비판한다.[22] 하지만 1990년대 한국의 여성운동은 구조/개인, 공/사, 정치경제/문화, 중요한 것/사소한 것 등의 경계를 해체하고, 경제, 정치, 문화의 삼분법을 만들어낸 기준을 해체하고 "문화를 정치경제적으로 사고하자"는 문제설정이었

22 낸시 프레이저, 임옥희 역, 『전진하는 페미니즘』, 돌베개, 2017, 261-313쪽.

다.[23] KTX 승무원 지부의 싸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한국사회에서 페미니즘은 정치 경제를 계속해서 사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정체성 정치에 대한 과소해석 역시 마찬가지다. 인종, 국적, 계급,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등이 교차된 위에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이며, 그 정체성을 통해서만 중층결정된 정치경제적 심급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불평등은 여러 억압이 교차하고 중첩된 결과로 생겨난다는 교차성(intersectionality) 이론은 '정체성 정치'를 단순화하는 오류를 경계하려는 태도에서 출발한다. 법학자였던 크렌쇼는 교차성을 미국에 있는 흑인, 유색여성들이 법률 장에서 경험하는 폭력을 통해 개념화한다. 유색인종 여성들은 강간이나 성폭력을 당했을 때 법적, 사회적 도움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결혼 이주 여성은 국외추방이 두렵기 때문에 학대를 견딘다는 것이다.[24] 이는 여성 억압은 성별에만 따른 것이 아니라 인종과 계급, 성적 지향 등이 중층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지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장애여성운동이다.

1998년 시작된 '장애여성공감'(이하 '공감')은 '장애인+여성'이 아니라 '장애여성' 그 자체의 억압과 차별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고 선언한다. "여성이 먼저냐, 장애인이 먼저냐라는 질문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 질문은 우리를 조각 내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여성이고, 여성 중에서 장애를 가진 여성이고, 장애는 여성인 나를 수식해주는 것일 뿐입니다."[25] 여성장애인이냐 장애여성이냐는 용어 하나를 정하면서도 여러 각도에서 문제에 접근해왔던 장애여성운동은 집단생활시설

23 권김현영, 「차이에 대해 말하기, 기억과 치유의 정치학을 위하여—'영페미니스트'가 말하는 계급과 문화정체성」, 『당대비평』 제15호, 2001, 233-244쪽.

24 Crenshaw, Kimberle, "Mapping the margins: Intersectionality, identity politics, and violence against women of color", *Stanford Law Review*, 1991.

25 장애여성공감 회원, 「장애여성,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한다」, 『공감』 제6호, 장애여성공감, 2003, 84쪽. "우리는 장애를 본질적인 범주로 나뉘는 기준으로 보거나, 불변하고 영속적인 특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상태에서 제한점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를 가진 여성'으로 불리기를 원한다. 이러한 제한점은 상대적으로 환경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여성은 비장애여성이라 불리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성을 장애여성이라 지칭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장애여성공감 단체소개 중.

에서 벌어진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자립운동을 시작하는 등 '장애여성'이라는 정체성을 바탕으로 운동을 시작한다. '공감'은 매년 한 차례 잡지를 발간하면서 한 해의 활동을 기록하고,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였다.[26]

1호(1998)	몸	2호(1999)	독립
3호(2000)	폭력	4호(2001)	문화 매체 속의 장애여성
5호(2002)	노동	6호(2003)	장애여성의 성
7호(2004)	장애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	8호(2005)	장애여성 생애사
9호(2006)	장애여성의 말하는 성	10호(2013)	가족
11호(2013)	장애여성운동 15년	12호(2014)	장애여성과 안전
13호(2014)	장애여성 관점에서 재생산권 논의를 시작하며	14호(2015)	몸
15호(2015)	몸2	16호(2016)	장애인 성교육
17호(2016)	피플퍼스트	18호(2017)	탈시설
19호(2017)	장애인 혐오	20호(2018)	20주년,『마침』
21호(2018)	장애여성문화예술운동	22호(2019)	2019년 IL과 젠더 포럼 〈공동행동과 도전행동〉

표 2. 잡지『공감』,『마침,』 주제 일람

26 "1999년부터 연1회 제작한 잡지는 그렇게 초창기 공감이 총력을 기울였던 활동이었다. 많은 활동가와 회원, 연대하는 이들이 참여했다. 몸, 노동, 폭력, 생애사, 가족, 교육, 섹슈얼리티 등 잡지에는 수많은 경험과 정치적 의견들이 새겨졌고, 이 언어는 장애여성 운동의 기록이자 이정표가 되어주었다."『마침,』 2018 상반기호(통권 20호),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2018, 11쪽.『공감』으로 출발하였던 잡지명은 20주년을 맞아『마침,』으로 변경되었다. '마침,'은 "끝을 말하지만 시작을 예고한다. 마침내 시작될 새롱누 영감이나 도전을 상징한다. 끝과 시작은 연결되어 있고 장애여성운동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 끝나지 않을 도전이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잡지『공감』의 20주년 기념호는 공감의 20년을 4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1998~2000년까지의 초창기는 운동의 정체성에 집중하는 단계로, 장애여성운동이 무엇인지를 논의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2단계인 2001~2005년 사이에는 비판적 관점의 연대를 중심으로, 장애인 이동권 연대 운동에 결합하였으며, 이성애/비장애/기혼여성 중심의 기존 여성운동에서 배제되는 소수자 여성들의 경험을 알렸다. 2000년대 중후반에 이르러서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로까지 확장되었으며, 가족구성권 보장 문제, 장애여성 주거권 문제 등의 연대활동을 진행하였다. 2015년 이후로는 장애여성 재생산권의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장애여성/소수자 관점으로 이슈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27] 실제로 공감은 IL 운동과 HIV/AIDS운동, 재생산권 운동 등으로 연대를 넓혀가고 있다.

1999년 잡지『공감』은 1호의 주제를 '몸'으로 선정한다. 이후로도 14호, 15호에서 장애여성의 몸을 다루고, 이와 연계하여 섹슈얼리티의 문제에도 집중한다. 6호, 9호에서 계속되는 섹슈얼리티 특집은 장애여성의 몸, 주체성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장애여성의 몸은 정상성과 비정상성, 할 수 있음과 할 수 없음을 넘나드는 문턱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공감은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폭력 피해 장애여성을 위한 상담 및 직접 지원 활동, 장애여성 인권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정책제안 활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당사자 및 주변인 교육과 사회인식 개선 활동 등을 실시한다. 2000년 상반기에는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언론에 보도되었다. 7년간 정신지체여성을 성폭행한 사건, 지체장애여성이 남편을 살해한 사건 등 장애여성들에 대한 성적, 물리적 착취를 고발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또한 언론에서도 장애여성에 대한 시설 내 폭력, 학대, 강제피임수술 등이 지면에 등장하였다. 그런데 성폭력 문제뿐 아니라 결혼과 가족 문제에 있어서도 장애여성의 섹슈얼리티가 영향을 미친다. 재생산할 수 있는 신체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여성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적 장애 여성은 결혼, 출산, 양육 등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28] 이는 뒤집어 말하면, 성폭력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된 아내, 어머니를 되지 못하게 만든 데 대한 처벌인 셈이 된다. 신고를 하는 가족

27 진경,「독자성에서 시작해 연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위의 책, 26-32쪽.

들도, 장애여성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아이에게 이런 짓을 한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는 분노를 표현한다.

> 저 어렸을 때 동네에서나 가족들은 절 여성으로 생각 안 했어요. 시집을 못 갈 거라 생각했고, 시집을 못 가기 때문에 여자가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저한테 많이 보였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에게 어머니나 할머니나 결혼은 할 필요 없고 혼자 살라고 많이 이야기했었고, 결혼하면 남의 집에 가서 애도 낳아야 하는데 그럴 수 없고 가사 일을 못하니까 형제들도 가사 일의 걱정을 했어요.[29]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재생산 노동과 직결된다. 비장애인을 출산함으로써 자신의 '정상성'을 입증해야 하는 구도이기도 했다. 재생산 노동(출산이나 가사)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장애여성에게는 섹슈얼리티가 허용되지 않았고, 섹슈얼리티에 대해서 무지한 '순결한 천사'의 이미지만이 가능했다. 하지만 "남성에게 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서슴없이 독립보단 결혼을 택하길 권하기도 한다."[30] 즉 재생산과 섹슈얼리티가 장애여성의 삶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재생산과 섹슈얼리티 문제에 대한 장애여성운동의 관심은 낙태죄 폐지 운동으로 이어진다. 낙태죄폐지운동을 주도한 성과재생산포럼은 '장애 여성의 재생산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장애여성의 재생산권은 장애여성의 삶에서 출현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고려해야 하며, 생명권 대 선택권이라는 구도를 넘어서 생명의 위계와 정상성 개념을 비판하고 비장애/이성애/기혼 여성의 출산 중심으로 진행된 재생산권 담론의 관점을

28 배복주, 「장애인 성폭력 사건해결과정에서 가족의 역할」, 『공감』 제10호, 장애여성공감, 2013, 14쪽.

29 영희, 「대담 '장애여성의 성'」, 『공감』 제6호, 장애여성공감, 2003, 61쪽.

30 「장애여성의 독립생활운동: [숨]센터 활동역사 중심으로」, 『장애여성공감 10년 활동사』, 한울아카데미, 2010, 62쪽.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일깨웠다는 것이다.[31]

> 대부분의 비장애인들은 장애인을 의존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비장애인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어려서는 부모에게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교육비도 부모에게 의존해서 공부를 한다. 그리고 취직을 해서도 부모의 집에서 살고, 어머님이 해주시는 모든 것(식사, 청소, 빨래 등)에 의존해서 살다가 결혼을 해야만 부모 곁을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결혼을 해서도 마찬가지다. 비장애남성은 아내가 해주는 모든 것에 의존하며 생활하고, 비장애 여성은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간다.[32]

몸과 섹슈얼리티 문제와 더불어 장애여성운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립'이다. 장애여성이 가족과 함께 살거나 시설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느냐는 질문은 능력주의(ableism)와 연결된다. 위의 글이 지적하는 것처럼 비장애인들은 장애인을 의존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의존과 비의존의 개념이 능력주의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능력주의는 계급이나 집단이 아니라 개인을 호명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은 교환가치가 될 수 있는 개인의 자질이고, 능력주의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똑같은 게임을 같은 장에서 같은 규칙의 공정한 통용 아래 하여 결과로서의 승패를 정당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설파한다.[33] 이로 인해 공동체의 적극적 시정조치(affirmative action)에 대한 가치 논의는 실패로 돌아간다. 능력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장애여성의 교환가치는 섹슈얼리티와 재생산능력에 있다. 이러한 지점은 장애여성운동이 장애, 여성, 섹슈얼리티, 능력주의 등 다양한 사회의 억압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감은 초기부터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숨]'을 운영하는 등 장애인자립생

31 백영경, 「낙태죄 폐지가 시대의 상식이 되기까지」, 성과재생산포럼 편, 『배틀그라운드』, 후마니타스, 2018, 8-11쪽.

32 정영란, 「독립」, 『공감』 제2호, 장애여성공감, 1999, 9쪽.

33 김미영, 「능력주의에 대한 공동체주의의 해체—능력 공과 필요의 복합평등론」, 『경제와 사회』 제84호, 비판사회학회, 2009, 256-277쪽.

활(Independent Living) 운동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다. 잡지 『공감』에서는 2호, 10호, 18호, 22호 등에서 장애여성의 자립과 가족, 시설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는 장애여성공감이 창립멤버들의 독립과 함께 시작하였으며, 장애여성 독립 문제가 활동의 화두였기 때문이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숨은 독립찾기』라는 잡지를 총 8호 발간하였다. IL 정보지를 선언한 『숨은 독립찾기』는 장애여성의 '독립'을 키워드로 하여 몸, 이동권, 주거권, 모성권, 활동보조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등의 다양한 이슈를 의제화하였다. 장애여성이 자립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삶의 전 영역을 '독립'으로 묶어낸 것이다. 특히 활동보조인과의 관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든가 활동보조인의 돌봄노동과 젠더 문제를 고찰하는 등 장애인의 선택과 결정권 문제를 젠더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처럼 장애여성 운동은 '장애여성'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에 기반하여, 장애여성이 직접 의제를 만들고, 실천하는 운동을 지향하고 있다. 결성 초기부터 계속된 공감의 고민은 20년간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장애여성의 성정치가 정체성 정치에 한정되는 것인가? 낙태죄 폐지를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한 성과재생산포럼의 출발에 '장애여성의 재생산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들어 있었다는 것은, 장애여성공감이 그동안 강제 불임시술이나 모자보건법 등의 문제를 고민해온 역사가 장애여성 당사자뿐 아니라 여성 '일반'의 역사에 포함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정체성 운동을 협소하게 환원하려는 1990년대 여성운동에 대한 해석을 반증한다.

5 퀴어문화축제와 광장의 전유

1987년 이후 광장의 성정치에서 가장 큰 변화로 성소수자 운동이 가시화되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2000년 시작한 퀴어문화축제는 대학로에서 서울시청 광장으로 장소를 옮겨 진행되고 있으며, 퀴어퍼레이드에 참여하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다. 퀴어문화축제는 광장이나 공원과 같은 장소에 무대를 설치하고 문화공연을 진행하고 홍보 및 판매 부스를 운영한다. 이어서 차도를 점용하는 퍼레이드는 집회와 같은 방식이지만, '축제'이기 때문에 정치적 의제를 표현할 수 있는 다

양한 방식을 제안하기도 한다. 김현철은 퀴어 퍼레이드를 "공공 공간과 성적 반체제자의 관계를 둘러싼 한국사회의 갈등 양상을 복합적으로 드러내고 재구축하는 장"으로 규정하고, 퀴어한 퍼레이딩은 '벽장'(closet)에서 나와 자신의 '반체제성'을 공공 거리에 전시하고 향유함으로써 이성애정상가족의 규범을 전도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고 정리한다.[34] 이때 퀴어문화축제는 성소수자의 존재를 대중에게 드러내어 알리고, 축제의 형식을 통해 비성소수자 집단과도 대면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파급력을 획득한다. 축제가 가진 특수성으로 진입 장벽이 낮아 즉흥적이고 개방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35] 특히 비규범적인 실천을 공적 영역에서 드러내는 퀴어문화축제의 정치성은 시스젠더 이성애 중심의 사회에 질문을 던진다. 'Don't Ask Don't Tell' 정책처럼, 네가 성소수자인 것은 상관없지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말라는 요구는 이성애규범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차별이며, 퀴어문화축제는 이를 드러냄으로써 광장의 의미를 전유하였다. 가장 사적인 것으로 일컬어지는 섹슈얼리티야말로 가장 공적인 것이라는 의미다.

2000.9.8.~9.	제1회 퀴어문화축제(무지개 2000)	대학로 거리 퍼레이드 (2000.9.9.)
2001.9.14.~9.16	한 걸음만 나와봐, 놀자~!	홍대앞 거리 퍼레이드 (2001.9.15.)
2002.6.5.~6.11	멈추지마, 지금부터야! 두근두근!	이태원(2002.6.8.)
2003.6.20.~29.	움직여_우리, 손과 손을 맞잡고 함께 움직이자!	종로3가 파고다 공원 (2003.6.21.)
2004.6.17.~24.	모두를 위한 자유와 평등	종로 4가 종묘공원 (2004.6.19.)
2005.5.7.~6.1.	퀴어 절정 Queer Up	종로 4가 종묘공원 (2005.6.5.)

34 김현철, 「성적 반체제자와 공공 공간: 2014 신촌/대구 퀴어퍼레이드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논문, 2015, 1~5쪽.

35 한윤애, 「'축제적 전유'를 통한 공공공간의 재구성—핀란드 '레스토랑 데이'를 사례로」, 『공간과 사회』 제25권 1호, 한국공간환경학회, 2015, 63-94쪽.

2006.5.30.~6.11.	위풍당당 퀴어행복!!	종로 4가 종묘공원 (2006.6.10.)
2007.6.2.~6.10.	This is QUEER! 이것이 퀴어다!	청계천 베를린광장 (2007.6.2.)
2008.5.31.~6.8.	작렬! 퀴어 스캔들	청계천 베를린광장 (2008.5.31.)
2009.5.30.~6.13.	십년감수	청계천 베를린광장 (2009.6.13.)
2010.6.2.~12.	Outing: 지금 나가는 중입니다.	청계천 베를린광장 (2010.6.12.)
2011.5.28.~6.8.	퀴어예찬	한빛미디어파크 (2011.5.28.)
2012.5.24.~6.2.	퀴어연가[가족, 연을 맺다]	한빛미디어파크 (2012.6.2.)
2013.6.1.~16	더 퀴어(THE QUEER), 우리가 있다	홍대 걷고싶은거리 어울마당 (2013.6.1.)
2014.6.3.~15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Love Conquers Hate)	신촌 연세로 (2014.6.7.)
2015.6.9.~28	사랑하라, 저항하라, 퀴어레볼루션	서울광장 (2015.6.9.)
2016.5.23.~6.19	Queer I am: 우리 존재 파이팅!	서울광장 (2016.6.11.)
2017.7.14.~23	나중은 없다, 지금 우리가 바꾼다!	서울광장 (2017.7.14.)
2018.7.13.~22	QUEEROUND	서울광장 (2018.7.14.)
2019.5.31.~6.9.	스무 번째 도약, 평등을 향한 도전!	서울광장 (2019.6.1.)

표 3. 서울퀴어문화축제 표어(2000~2019)

초창기 퀴어문화축제는 토요일에 진행되는 퍼레이드를 포함하여, 댄스파티, 전시회, 영화제 등의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2000년부터 2019년까지 퀴어문화축제의 표어를 살펴보면, '축제'의 성격이 잘 드러난다. 초창기 퀴어문화축제의 슬로건 '놀자'는 성소수자의 비가시성을 의식한 것이었다. 광장에 모여서 '노는' 것만으로 의미를 가진다는 뜻이다. 이후 자부심(queer pride)을 강조하는 '위풍당당'

‘우리가 있다’ ‘예찬’ 등의 단어는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긍정하고, 가시화한다는 축제의 목표를 잘 보여준다.

> “‘지금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어. 게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 그런데 내가 그 시선을 견디고 있어.’ 이런 마음이 들면서 동시에 그런 불안을 견디고 나온 게 자랑스럽기도 해요. 또 다들 별 신경 안 쓰고 함께 걷는 것 같거든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 나도 그럴 수 있을 거야.’ 복잡한 감정들이 점점 가슴 벅참으로 바뀌죠. 한번 해본 것과 안 해본 것의 차이는 엄청 커요.”[36]

비온뒤무지개재단 상임대표이자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퍼레이드 부기획단장 한채윤은 인터뷰에서 위와 같이 말하면서, 퀴어문화축제의 퍼레이드가 자신을 긍정하고 자랑스럽게 하는 활동이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퀴어문화축제의 운동방식은 축제 역시 운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구호를 외치고, 대오를 짜는 형식을 취하지 않아도 공공장소에서 ‘커밍아웃’을 수행함으로써 정치를 전유하는 것이다. 그 결과 2000년 대학로에서 약 70명의 인원으로 진행되었던 퀴어퍼레이드는 2019년의 20회에 이르러 참여 인원이 15만 명을 기록하는 대규모 축제가 되었다. 게다가 서울뿐 아니라 2009년 대구를 시작으로, 2017년에는 제주와 부산, 2018년 광주와 전주, 인천에서도 개최되었다. 퀴어문화축제를 준비하는 조직위는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의제를 제시하면서 연대한다. 2018년의 제주 퀴어문화축제는 제주생명평화대행진, 강정 해군기지 관함식 반대 문화제, 난민인권네트워크 제주 난민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 등과 함께 활동하고 있다. 부산 역시 지역의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연대체가 구성되었으며, 차별금지법 제정 부산연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 개정에 대응하고, 장애인 차별

36 이주영, 「‘기사 0건’ 굴욕적 축제, 지금은 이렇게 변했습니다—70명에서 15만 명으로… 퀴어축제의 변화와 과제」, 『오마이뉴스』, 2020.2.21. http://www.ohmynews.com/NWS_Web/Event/Premium/at_pg.aspx?CNTN_CD=A0002609689

철폐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37] 각 지역 도시로 전파된 퀴어문화축제는 성소수자의 가시화라는 의제가 여러 방면과 만나서 다양성을 획득하는 광장의 작동방식 변화를 보여준다. 퀴어는 계급이나 계층(status)으로 통일되지 않는, 그야말로 2000년대 이후에 등장한 광장의 주체인 것이다.

퀴어문화축제와 같은 프라이드 운동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운동과 달리 주류 사회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운동으로 일컬어졌다.[38] 자신의 존재를 광장에 드러냄으로써 이성애가 사회를 지배하는 '제도'라는 사실을 폭로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사회에서 퀴어문화축제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운동이기도 하다. 매년 퀴어문화축제의 공간사용 허가를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진다. 서울시는 고의적으로 퀴어문화축제의 시청광장 사용 허가 신청을 지연시켰으며, 시민들의 '동의'라는 형태를 기록하기 위해 열린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였다.[39] 사용허가를 내주지 말 것을 요구하는 혐오세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탓이다. 태극기집회와 같은 보수세력의 집회를 광장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반동성애 집회이기도 하다. 반동성애 세력은 퀴어문화축제의 퍼레이드를 방해하고, 참가자들을 공격하며 가짜뉴스를 생산한다. 이로 인해 경찰이 퀴어문화축제와 퍼레이드의 안전을 담당하는 아이러니도 발생한다. 국가가 퀴어문화축제의 승인을 지연시키는 동시에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양가성은 한국의 퀴어문화축제가 가진 특수성을 드러낸다.

2010년대 이후 퀴어문화축제에는 반동성애 세력의 활동으로 인해 '혐오'와 저항의 키워드가 등장하였다. 2014년 신촌 연세로에서 반동성애 세력의 퍼레이

37 홍예륜, 「지방도시의 퀴어 축제를 통해 형성된 다양성 레짐: 대구, 제주, 부산을 사례로」, 서울대 지리학과 석사논문, 2019, 46-55쪽.

38 Bruce, Katherine McFarland, *Pride Parades: How a Parade Changed the World*, New York: NYU Press, 2016; 조수미, 「퀴어문화추구제 공간의 상징과 의례」, 『한국문화인류학』 제52권 3호, 한국문화인류학회, 2019, 219쪽 재인용.

39 「서울시, 퀴어축제 광장 사용신고 처리 5년간 부당하게 늦췄다」, 『경향신문』, 2019.10.2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230848001&fbclid=IwAR0TvecVI7nU0Xbr3sYv7BpRL_0EwkxTU4TiQN0rgocmpKOHGGLk0R0ag4s

드 저지로 행진 중단을 경험한 이듬해인 2015년에는 도리어 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였으며, 퍼레이드 구간도 넓어졌다. 2015년부터 서울광장이 퀴어문화축제의 개막식 및 퍼레이드 출발지점으로 정해졌으며, 서울광장-시청삼거리-을지로입구사거리-을지로2가사거리-명동성당사거리-퇴계로2가교차로-명동역-회현사거리-한국은행앞사거리-소공로-시청삼거리-서울광장을 거치는 현재의 코스가 완성되었다. 서울광장에 대한 허가신청을 불허하라는 압박이 커지고, 공간사용 신청을 둘러싼 반동성애 세력과의 갈등이 가시화될수록, SNS를 통해 모인 사람들은 서로 이어서 줄을 서며 자리를 맡거나 모금을 진행하는 등 퀴어문화축제의 운동성을 오히려 강화하였다.[40]

버틀러는 "여성, 퀴어, 트랜스젠더, 빈민, 장애인, 무국적자, 종교적 인종적 마이너리티"는 자신의 취약성 때문에 모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들은 공공 장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의지를 가시화할 수 있다.[41] 즉 광장에 여성이, 퀴어가, 장애인이 등장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정치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하나의 깃발이나 하나의 거대 이념이 종합하던 1980년대 광장에서 점차 여러 주체가, 여러 의제가 등장하는 광장으로 이동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광장의 주체로 여성, 퀴어 등 비남성들이 호명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6 나가며

1996년 '연대 사태' 직후, 당시 국회의원이던 추미애는 대규모 검거 과정에서 전경이나 경찰에 의한 성추행과 성폭력이 빈번했음을 고발했다. 그러나 그 고발은 "국회에서는 말해선 안 되는 어떤 것"으로 여겨졌다.[42] 당사자들이 나서서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지만, 대상 특정이 불가능하고 증거가 불충분

40 이근아, 「385명 '릴레이 줄서기' 퀴어축제 집회 신고戰」, 『서울신문』, 2019.5.5.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506010009#csidxc8c67605c2a5cecbf9cedda175a999a

41 Judith Butler, *Notes Towards a Performative Theory of Assembly*, Harvard University Press, 2015, p.53.

42 「한총련 여대생 성추행 주장, 추미애 의원 폭로」, 『경향신문』, 1996.10.10.

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언제나 특정한 문제들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중에' 해결해도 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이처럼 아이러니하게도 민주주의를 외치는 광장에는 언제나 본질적인 것과 부차적인 것, '우선'과 '나중'이 존재한다. 그리고 자주 그 '나중에'는 성화된(sexed) 존재에서 기인한다.

본고는 왜 1990년대의 성정치는 '자유'의 맥락에서만 소환되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했다. 군사정권이 끝나고 민주사회가 도래하였으며, 이념의 시대가 끝나 개인과 자유의 시대가 되었다는 1990년대에 대한 해석은 성정치를 자유주의, 혹은 정체성 정치라는 협소한 틀에서 해석한다. 하지만 이는 1980년대부터 대중운동으로 성장해온 여성운동의 역량을 비가시화하는 해석 방식이다. 최근 대규모의 민주노총 집회에서는 이색적인 풍경이 등장한다. 핫핑크색 조끼를 입은 학교 비정규직 노조, 학습지 교사 노조 등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단위가 늘어난 것이다. 계급이냐 성이냐는 오래된 질문이 우문임을 보여주는 이들의 존재는 다시금 한국사회에서 성과 계급의 대결은 무엇이었는가를 질문하게 한다. 성정치로 인해 계급운동이 분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정치를 제대로 사유하지 못해 계급이 대중운동으로서 힘을 잃어갔던 것으로 설명해야 하는 것이다. 87년 이후 광장에 젠더 이슈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것을 비가시화함으로써 젠더화된 시민의 형상을 놓친 것이다.

한국여성대회는 매년 보편적 여성 의제를 발굴하고, 여성 시민의 형상을 광장에 기록하였다. 장애여성운동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적 비정상성을 설명한 언어를 찾아 광장에 나섰다. 퀴어문화축제는 집단운동의 성격을 축제로 전유하고, 한국사회의 대중운동에 새로운 방향을 가져왔다. 이들은 비정상화, 비가시화된 젠더 하위주체들의 계보를 복원함으로써 광장의 역사적, 정치적 의미를 '남성 시민 주체의 정치적 공간'이라는 영토로부터 탈구축하였다.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걸쳐서 이루어진 정체성 정치에 대한 판단 중지 혹은 비판은 오히려 정체성 정치를 협소하게 해석하는 결과를 낳았고, 그 결과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의 여성 정치를 마치 진공상태에서 등장한 것처럼 축소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1987년 이후 광장은 여성운동을 부분 운동, 정체성 운동이라 해석하던 것과 달리, '따로 또 같이'라는 차이를 바탕에 둔 연대를 이룩하였으며, 그 운동역량을 축적하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2015년 이후 광장에서 가시화된 여성 시민 대중의 표상을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2019년 여성들의 광장에서 '같은 여성'이라는 공감의 정서는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여성들은 『82년생 김지영』을 함께 읽고, 여성으로서의 삶에 공감하며, 불법촬영에 분노한다. 계급, 계층, 직업, 나이에 상관없이 여성이 그 자체로 종속된 계급이라는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생물학적 여성으로의 동일성을 강조하는 것은 여성 계급의 해체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여성을 계급으로 사유하는 급진적 페미니스트 모니크 위티그는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원론적 인지 자체가 이성애를 유지하는 도구이며, 지배와 종속을 재생산한다고 비판한다. "이성애 사회는 모든 단계에서 차이/타자에 대한 필요를 기초로 한다. 이 개념이 없이는 경제적으로, 상징적으로, 언어학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43] 위티그는 이러한 입장에 따라 여성이라는 계급을 해체하고, 성 구분을 없애 보편화하는 것이 여성 해방의 방법이라고 지적한다. 이성애규범성의 사회에서 타자성을 제거하기 위해, 성별은 없다고 선언하는 위티그의 페미니즘은 동일성에 대한 강조는 이성애 사회, 성별 구분에 대한 필요를 삭제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성애 사회를 강조하는 생물학적 여성으로의 환원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계급으로서 여성을 외치는 목소리는 여성의 유구한 억압과 한국사회의 여성혐오를 고발한다. 남성연대를 위해 여성혐오가 동원되는 현실에 대해 비판하고 여성의 지위 향상을 도모한다. 이 과정에서 남성연대를 해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원론적 성체계, 즉 이성애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어야 한다. 1987년 이후 여성들이 광장에서 연대의 폭을 확장하며 운동할 수 있었던 것은, 여성 의제를 보편화하는 전략이기도 했다. 젠더가 광장에서 가장 시급한 의제로 등장한 지금이야말로, 광장의 계보를 역사화하고, 운동의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참고문헌

43 모니크 위티그, 허윤 역, 『모니크 위티그의 스트레이트 마인드』, 행성B, 2020, 89-90쪽.

기본자료

또하나의문화, 『또하나의문화』 10, 또하나의문화, 1994.

장애여성공감, 『공감』, 장애여성공감, 1999~2017.

장애여성공감, 『마침,』,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2018~2020.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공감 10년 활동사』, 한울아카데미, 2010.

한국여성의전화 편, 『한국여성인권운동사』, 한울, 2015.

단행본

김홍중,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2009, 17-50쪽.

성과재생산포럼, 『배틀 그라운드』, 후마니타스, 2018, 8-11쪽.

전희경, 『오빠는 필요없다』, 이매진, 2008, 199쪽.

천정환·정종현, 『대한민국 독서사』, 서해문집, 2018, 261-262쪽.

너멀 퓨워, 김미덕 역, 『공간 침입자』, 현실문화, 2017, 9-30쪽.

린 헌트, 조한욱 역, 『프랑스 혁명의 가족 로망스』, 새물결, 1999, 83-138쪽.

모니크 위티그, 허윤 역, 『모니크 위티그의 스트레이트 마인드』, 행성B, 2020, 89-90쪽.

Judith Butler, *Notes Towards a Performative Theory of Assembly*, Harvard University Press, 2015, p.53.

논문

김미영, 「능력주의에 대한 공동체주의의 해체—능력 공과 필요의 복합평등론」, 『경제와 사회』 제84호, 비판사회학회, 2009, 256-277쪽.

김성일, 「광장정치의 동학—6월 항쟁에서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까지」, 『문화과학』 제89호, 문화과학사, 2017, 146-168쪽.

김영찬, 「'90년대'는 없다: 하나의 시론, '1990년대'를 읽는 코드」, 『한국학논집』 제59호,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5, 7-27쪽.

_____, 「무라카미 하루키, 사라지는 매개자와 1990년대 한국문학」, 『한국학논집』 제72호,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8, 7-30쪽.

김 원, 「80년대에 대한 '기억'과 '장기 80년대'」, 『한국학연구』 제36호,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5, 9-49쪽.

김현철, 「성적 반체제자와 공공 공간: 2014 신촌/대구 퀴어퍼레이드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논문』, 2015, 1-105쪽.

조수미, 「퀴어문화추구제 공간의 상징과 의례」, 『한국문화인류학』 제52권 3호, 한국문화인류학회, 2019, 209-272쪽.

조연정, 「문학동네의 90년대와 386세대의 한국 문학」, 『한국문화』 제81호,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8, 221-246쪽.

조 형, 「또 하나의 문화 10주년 기념 좌담 '따로 또 같이 하는 사회운동'」, 『또 하나의문화—내가 살고 싶은 세상』 제10호, 또하나의문화, 1994, 466-476쪽.

조혜정·김은실, 「또 하나의 문화, 앞으로 10년」, 『또하나의문화—내가 살고 싶은 세상』 제10호, 또하나의문화, 1994, 477-499쪽.

주은우, 「자유와 소비의 시대, 그리고 냉소주의의 시작: 대한민국, 1990년대 일상생활의 조건」, 『사회와 역사』 제88호, 한국사회사학회, 2010, 307-344쪽.

한윤애, 「'축제적 전유'를 통한 공공공간의 재구성—핀란드 '레스토랑 데이'를 사례로」, 『공간과 사회』 제25권 1호, 한국공간환경학회, 2015, 63-94쪽.

허 윤, 「1970년대 여성교양의 발현과 전화(轉化): 『女聲』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제44호,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3, 47-89쪽.

홍예륜, 「지방도시의 퀴어 축제를 통해 형성된 다양성 레짐: 대구, 제주, 부산을 사례로」, 서울대 지리학과 석사논문, 2019, 46-55쪽.

Crenshaw, Kimberle, "Mapping the margins: Intersectionality, identity politics, and violence against women of color", *Stanford Law Review*, 1991, pp.1241-1299.

인터넷 자료

서울퀴어문화축제 www.sqcf.org

한국성폭력상담소 www.sisters.or.kr

한국여성단체연합 www.women21.or.kr
한국여성민우회 www.womenlink.or.kr

Abstract

Gender and the genealogy in the square after 1987

Heo, Yoon

The text began with the question of why sex politics in the 1990s was only summoned in the context of 'freedom'. The interpretation of the 1990s that military regimes ended, democratic societies came, and the era of individual and freedom ended, interprets sex politics in a narrow framework of liberal, or identity politics. However, this is a way of interpreting the ability of women's movements, which have been growing as a mass movement since the 1980s. However, contrary to this interpretation, since 1987, women have chanted slogans such as sexual violence, domestic violence and the abolition of the hoju system in the square. Gender has emerged as the main player of the plaza, including the Korean Women's Congress to celebrate World Women's Day since 1985, the disabled Women's Movement, which has been seen since the mid-1990s, and the Queer Culture Festival, which has lasted for 20 years since 2000. Therefore, it is safe to say that the interpretation of "the 1990s" by individuals is not that the plaza disappeared, but that the plaza was not seen.

In the history and genealogy of the square, 'difference' has been dismissed as a peripheral object or distorted in a different sense. When non-men proposed the plaza's agenda, they were visible, considered intruders, and women's slogans were categorized as "next time" all naturally resolved. But whatever the state and the public forum thought, sex politics was accumulating its capacity as a mass movement and emerged from the square. The disabled women's movement and the LGBT movement introduced the plaza and gained the ability to lead the plaza's agenda.

Key words: LGBT, 3.8 women's day, Seoul Queer Culture Festival, the gender in Square

본 논문은 2020년 3월 10일에 접수되어 2020년 3월 16일부터 4월 11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20년 4월 15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